

# 북스

Books

## 정조-강이천 통해 본 18세기 '문화투쟁'

### 정조와 불량선비 강이천

백승종 지음

조선 선비 강이천은 1797년 11월 불길한 유언비어를 퍼뜨려 흑세무민한 죄로 유배를 갔고 정조 사후 이 사건으로 다시 불합해 결국 옥중에서 숨진다. 강이천은 조선 후기 사회의 시한폭탄 같은 존재였다. 그는 천주교와 서양에 대한 동경으로 당시 금지됐던 다양한 문화 투쟁을 펼쳤다.

영조와 함께 '조선의 르네상스'를 이끈 정조의 인재 사상은 유별났고, 규장각을 세워 참신하고 유능한 젊은 인재들을 적극 등용했으며 스스로도 학문을 게을리하지 않아 모범이 된 대표적인 선군이었다.

하지만 미시사 연구가 백승종(전 서강대 교수)의 눈에 정조가 훌륭한 임금으로만 비치지는 않는다. 백승종씨는 신간 '정조와 불량선비 강이천'을 통해 그동안 정조에 대한 이 평가가 다분히 평면적이라고 지적한다. 저자는 정조 시대 선비 강이천을 통해 조선의 대표적 명군(名君) 정조와 18세기 조선 사회의 새로운 모습을 복원해낸다. 강이천을 주인공으로 내세워 정조의 알려지지 않는 면을 추적한다.

강이천은 복인 명문가의 후예였다. 할아버지 표암 강세황은 문인이자 화가로 이름을 날렸다. 12살의 어린 나이에 정조의 부름을 받고 궁궐에 들어가 시를 지어 정조의 칭찬을 받았을 정도로 문학적 재능이 특출났다.

하지만 강이천은 조선 사회가 요구하던 성리학 공



부에 매몰되기를 거부했다. 그는 조선의 지배층이 이단으로 규정된 천주교와 정감록에 관심을 가졌으며 성리학과 거리가 먼 새로운 문예 풍조인 '패관소품'(裨官小品)을 즐겼다. 패관소품은 청에서 유입되어 유행했지만 조정에서는 잡기라 하여 금지하고 정통 고문(古文)을 문장의 모범으로 삼게 했다.

저자는 강이천이 18세기 불온한 분위기를 한몸에 지닌 '종합선물세트'였으며 정조를 궁지에 빠뜨린 공상적 이상주의자였다고 평가한다.

강이천은 존재 자체가 체제에 대한 위협이었다는 것이다. 그가 신봉했던 예언(정감록)과 천주교, 서양에 대한 기대, 패관소품 등이 하나로 엮이면 체제를 파괴하는 엄청난 폭발물이 될 수 있었다고 저자는 말한다.

반면, 정조는 조선 왕조의 국시인 성리학 이념을 지키려 한 "노회한 정략가였다"고 저자는 평가한다. 시대의 변화를 감지하는데 누구보다 빠르고 정확했던 정조는 시대의 변화를 완전히 무시하기 어렵다는 점 역시 잘 알고 있었지만 이를 용납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이른바 '강이천 사건'이 주류 문화인 성리학과 비주류 문화인 천주교, 정감록 등과의 대립을 상징하는 사건이라고 규정한다. 강이천으로 대표되는 일군의 지식인들과 정조 사이에 벌어진 '문화투쟁'이었다고 분석한다.

정조는 문제반정(文體反正)을 일으켜 패관소품식 글쓰기를 완전히 몰아냈으며 정조의 이러한 정책 기조는 다음 왕인 순조 때도 그대로 계승됐다.

이후 조선 지배층에서는 강이천과 같은 젊은이들이 다시는 배출되지 않았고, 조선 지배층은 더욱 보수화됐으며 자력으로 사회개혁과 개화정책을 추진할 수 없을 지경에 이르렀다고 저자는 지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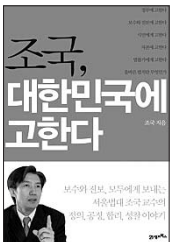
〈푸른역사·1만6500원〉  
/오광복기자 kroh@kwangju.co.kr



역사학자 백승종은 문제반정을 일으킨 정조에 대해 성리학을 지키기 위한 보수적인 측면이 강하다고 평가했다. 사진은 정조의 일대기를 그린 드라마 '이산'의 한 장면.

###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정의·복지는 무엇인가

진보적 법학자인 조국(46)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사회 비평집 '조국, 대한민국에 고한다'가 나왔다.



'성찰하는 진보'(2008년), '보노보 찬가'(2009년)에 이은 세 번째 권이다.

이번 비평집에서 조 교수는 현 정부와 각 정당, 그리고 시민에게 합리와 상식의 회복, 성찰과 혁신의 필요, 노동과 복지의 강조 등 화두를 던진다.

조 교수는 권력층의 위장 전입, 스폰서 유착, 미네르바 사건, 무상급식 논란 등 사회 현안을 꼼꼼히 진단·분석해, 우리에게 필요한 정의와 공정, 인권, 표현의 자유, 복지가 무엇인지 말한다.

〈21세기북스·1만9000원〉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 미술관 옆 인문학 박홍순 지음 인상파, 파리를 ... 이택광 지음

미술과 인문학, 요즘 쏟아지는 책 중에서 꽤 많은 지분을 갖고 있는 분야다. 미술과 인문학을 접목시킨 두권의 책이 나왔다.

'맛있는 고전 읽기' 등을 펴낸 박홍순씨가 집필한 '미술관 옆 인문학'은 당대의 다양한 시대상과 고민을 담은 '미술 작품'을, 조금은 어렵고 딱딱하게 느껴지는 인문학으로 안내하는 길잡이로 삼았다.

책에 실린 총 35편의 글은 자유, 동양과 서양, 이성, 빈곤, 일상성, 자아 등 인문학적으로 통찰이 필요한 6가지 테마로 나뉘고 있다.



저자는 유명한 클림트의 '키스'를 통해 에로티시즘을 이야기하고 자연스럽게 보카치오의 '데카메론'으로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며 백남준의 비디오 작품 'TV 부처'는 맥루한의 '미디어의 이해'를 찾아가는 길잡이 역할을 한다.

또 선비의 꿈은 절개를 느끼게 해주는 윤두서의 '자화상'과 렘브란트의 '웃는 자화상'은 한 인간의 삶과 죽음에 대한 성찰과 고민을 담은 카뮈의 '시지프스 신화'로 가는 매개체다.

그밖에 피카소·에셔·드가·강연경·교야 등의 작품과 마르크스의 '자본론', 마빈 해리스의 '문화의 수수께끼', 니체의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 등을 만날 수 있다.

경희대 이택광 교수가 쓴 '인상파, 파리를 그리다'는 근대화의 과정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19세기 파리의 모습을 다양한 인상파 그림을 통해 보여주는 책이다. 지금의 파리 모습은 19세기 후반 오스

### 인문학, 이젠 미술로 즐기자

망 남자의 지휘 아래 추진된 도시계획으로 완성되었고, 인상파 화가들은 그 변화의 순간을 생생하게 그림으로 묘사해냈다.

저자는 이미 '근대 그림속을 거닐다' '중세의 가을 거닐다' 등 두권의 저서를 통해 인문학을 기반으로 한 독특한 '그림 읽기'를 보여준 적이 있다. 이번 나온 책은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인상파 아틀리에'라는 이름으로 연재됐던 것으로 무겁지 않게 읽을 수 있는 글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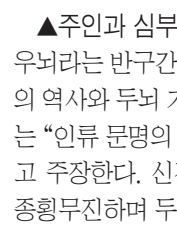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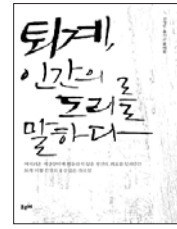
르누와르의 그림을 통해서 파리코뮌이 인상파 화가들에 준 영향을 살펴보면, 모네의 '높은 파도가 치는 푸르빌'을 통해 당시 프랑스의 금융위기를 짚어낸다.

파리의 사회상과 파리지역들의 모습 뿐 아니라, 마네, 모네, 드가, 세잔 등 인상파 화가들에 얽힌 재미있는 이야기도 만날 수 있다.

〈아트북스·1만6000원〉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 새책

▲옛날에 대하여=시간과 존재의 기원에 대한 탐구, 뿌리 없이 표류하는 현대사회에 대해 성찰하는 깊은 사색을 담은 작품을 써온 프랑스 작가 파스칼 키냐르의 '마지막 왕국' 시리즈의 두번째권. 사라지고 없는 '옛날'에 대한 광대하고 무뎠한 사유가 돋보이며 '시간' 개념(과거-현재-미래로 이어지는)과는 다른 형태로 시간 개념을 재구축한다. 시리즈 3권 '삼연물'도 같이 나왔다. 〈문학과지성사·1만3000원〉



▲퇴계, 인간의 도리를 말하다=퇴계 이황 선생의 말씀과 행동을 정리 기록한 '퇴계어록'을 새롭게 해석하고 풀어냈다. 퇴계의 학문적 주장인 '이기론'을 비롯해 정신 수양법, 책읽기, 마음가짐, 제사 지내는 법, 벼슬길에 나아가고 물러나는 도리, 선물을 주고받는 의리, 손님맞이, 제자를 대하는 법, 시골살이에 이르기까지 매우 엄격하면서도 인간적인 선생의 면모를 만날 수 있다. 〈푸름=1만4800원〉

▲폭력이란 무엇인가=헤겔의 철학과 라캉의 정신분석학을 바탕으로 마르크스 이론 등을 날카롭게 왕성한 저술 활동을 펼치고 있는 철학자 슬라보예 지젝의 2008년 작. 폭력에 가담하는 사람들의 위선을 폭로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폭력'에 초점을 맞출 것을 역설한다. 주관적 폭력과 객관적 폭력의 차이, 폭력의 궁극적 원인 등을 살펴보고, 폭력의 본질을 탐구한다. 〈난장아·1만5000원〉

▲아흔 개의 봄=역사학자 김기협씨가 아흔의 치매 노모를 돌보면서 쓴 일기를 엮은 것이다. 어머니에 대한 애절한 마음과 가슴 깊숙한 곳에 차곡차곡 담아두었던 회한이 배어 있다. 아들의 도리를 다하지 못한다는 죄의식을 조금씩 벗어나 어머니와의 관계 변화를 꾀하는 진솔한 이야기가 감동을 전한다. 〈서해문집·1만2900원〉

▲우리 건축 서양 건축 함께 읽기=임석재 이화여대 건축학과 교수가 대중을 위해 쉽게 쓴 건축교양서. 1999년 '우리 옛 건축과 서양 건축의 만남'이란 이름으로 펴낸 책의 개정판이다. 한국의 전통 건축 속 팔각지붕과 서양 건축물의 곡선 지붕, 봉정사의 돌계단과 미켈란젤로가 설계한 이탈리아 피렌체의 라우렌티노 도서관의 곡선 계단을 비교하는 식으로 한국 전통 건축과 서양 건축의 유사성과 차이점을 설명한다. 〈컬처그라피·2만원〉

▲길 걷는 디자이너=1982년 독일로 디자인 유학을 떠난 이래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세계의 디자인을 경험했던 프리랜서 디자이너 정수희씨의 여행과 디자인 이야기. 프랑스와 이탈리아, 스페인, 폴란드, 체코, 베트남, 일본, 싱가포르, 발리 등 28년간 세계를 여행하며 얻은 디자인에 대한 생각과 교훈을 들려준다. 〈멘트프레스·1만4500원〉

▲주인과 심부름꾼=정신과 의사인 이언 맥클리스트가 좌뇌와 우뇌라는 반구간 기능과 역할 대한 20년 간의 연구를 바탕으로 사상의 역사와 두뇌 기능의 변이 사이의 관계를 분석한 과학교양서. 저자는 "인류 문명의 역사는 우뇌와 좌뇌가 벌인 치열한 대결의 역사"라고 주장한다. 신경학에서 심리학으로, 다시 철학·신화학·문학으로 종횡무진하며 두뇌 구조가 인류문화에 미친 영향을 보여준다. 〈유진트리·4만원〉



## “아버님, 어머님 사랑합니다!”

사랑은 작은 관심의 실천입니다.  
부모님께 사랑한다는 말을 해보십시오.

어머님, 아버님 사랑합니다.  
마음 속에서만 했었던 사랑한다는 말, 3분이면 충분합니다.  
사랑은 작은 관심의 실천입니다.  
삶의 즐거움은 누군가의 억지말로 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가 직접 느끼고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마음은 몸과 마음에 건강을 준다고 믿고 있습니다.  
국제약품은 그 사랑의 힘을 믿습니다.

가장 좋은 약은 사랑입니다.



가장 좋은 약은 사랑입니다



**국제약품**

www.kukjepharm.co.kr